

목어

‘단순함’



김정자 언론인·본지 논설위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함입니다’

요즘의 광고카피에 이처럼 ‘단순함’이란 단어가 나타났다. ‘Simplicity’라 영어로도 적고 있다. 단순함이 인생을 복잡하지 않고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든가, 인생을 거주장스럽게 하는 복잡한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등의 문구가 뒤따른다. 영어 Simplicity는 평이, 간단, 꾸밈없음, 천진난만 등으로 쓰인다. 무엇으로 쓰든 여유로움이 배어 나오는 단어다.

광고카피에 나오는 ‘단순함’이란, 과학문명으로 하여금 보다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해 하겠다는 다짐일 것이다. 끝없이 편리함을 추구해 가는 인간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Simplicity는 앞으로 상품개발에 있어 제일의 키워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다. 복잡했던 기계조작들이 버튼 몇 개 눌러 해결하는 것으로 발전했다가 이전 버튼 하나만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 알아서 해주는 식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가사의한 것은 우리생활이 단순해지기는 커녕 더욱 복잡해져만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학문명이 추구하는 ‘단순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과학문명이 가져오는 ‘단순함’은 우리 삶의 ‘단순함’과 다른 것일까.

지금 우리 생활주변에는 예전에 없던 수많은 기기(利器)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수많은 기기들이 모두 단순화를 지향해 왔다고는 하나 늘어나는 기기의 숫자만큼 우리 생활은 더욱 복잡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모순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Simplicity의 삶이란 문명의 기기들이 아무리 Simplicity를 추구해 왔다 해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그 기기의 숫자를 줄이는 것일 터이다. 광고에 미안하지만 ‘인생을 거주장스럽게 하는 불필요한 것’이란 그 카피처럼 말이다.

불자 세상보기



윤원철 서울대 교수 종교학자

어느새 몇 차례 얼음이 얼고 눈도 내렸다. 지난봄과 여름의 푸르른 기억들은 온(溫)해는 빨간색으로 기억하는 이들도 많을 게다. 몇 번의 때 이른 스산한 바람과 함께 아득히 멀어진 지 오래고, 유난히 짙었던 가을풍경도 나 같이 마음 바쁜 이들은 눈길 한번 줄 사이도 없이 스러져 버렸다.

그러면 어쩌랴.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계절마다 새록새록 마련되는 즐거움이 있다. 마침 여기서 기서 스키장이 개장하는 참에 눈치 빠르게 휘날려주는 눈발은 얼마나 기특한가. 골프 장갑을 스키 장갑으로 갈아 끼고 물려온 인파의 환호는 그야말로 살맛 나서 못 견디겠다고 진저리를 치는 듯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맘때면 언제

자신의 즐거운 인생에 폭 빠져서, 또는 고달픈 살림살이에 전념하느라 끝없는 집안 세 없이 바쁜 것이 우리네 대부분의 모습이다. 그러나 자기의 율타리를 넘어 늘 남의 사정을 살피면서, 남의 어깨 시린 현형을 보면 같이 시려 하는 이들도 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런 부부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훈훈해진 적이 있다. 환경미화원 남편과 보림집계사로 일하는 부인의 이야기

남을 돕기보다는 도움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남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쓰는 또 한 예를 보았다. 연골이 생기기 않아 뼈가 제대로 발육하지 않는 연골무형성증이라고, 흔히 하는 말로는 난쟁이인 아버지와 그 병을 물려받은 두 딸, 그리고 생모도 아니고 난쟁이도 아니면서 스스로 그 집안 들어와 딸들을 살뜰하게 키운 어머니, 이렇게 네 식구의 이야기였다. 아버지와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큰 스승이라는 생각이 든다. 희식 높은 고담존론으로 가르침을 주어야만 스승인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더욱이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스승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베풀이란 꼭 자기 살림이 넉넉하게 넘쳐나서 남는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이다. 그들이 앞에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못 배운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다.

원효대사는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도(道) 뒤는 일을 자꾸만 미루는 사이에도 세월은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니 “급하지 아니한가. 급하지 아니한가?” 하고 질책하였다. 위에 소개한 우리의 스승들은, 베풀의 복 짓기는 그 누구라도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건만 또 나중으로 미룰 것이냐며 역시 “급하지 아니한가. 급하지 아니한가?”라고 질책하는 듯하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 몸소 보여주니 진정한 스승

나 떨어지는 나뭇잎들보다 몇 걸음 앞서 지레 마음이 졸아들고 앙상해지는 나뭇가지들보다 먼저 추위를 뺏속에 담으며 시린 어깨를 한없이 웅크리는 이들이 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된 길잡이 연탄이나 월동준비나 하는 말이 아직도 천근만근의 무게로 가슴을 눌러대는 그런 이들 말이다.

이다. 직입만 들어도 그들의 살림살이가 결코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단박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이맘때면 그해에 저축한 돈을 털어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해왔다. 올해는 지난여름에 태풍 피해를 극심하게 입은 강원도 사람들에게도 김치를 보낸다고 한다.

어머니는 곡예단에서 일하다가 곡예단이 퇴조하면서 직장을 잃고 갖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장애인이 겪는 고초야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될 것이다.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곡예를 보여주고 호박엿을 팔며 길 위에서 사는 그들이, 잠잠 집에 들어와 쉴 때면 동네 노인들을 모아 음식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주고 한다.

열린 마당

얼마 전 열린 조계종 제13대 중앙총회가 계파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파당적 이해대립이 이런 중회 들어 노골화되는 등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양상을 두고 일부에서는 중회 내에 계파가 없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차르리 양성화해 정책대결을 벌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양쪽의 견해를 들어본다.

중회단체라고 해서 정치행위가 없을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종교단체인 경우 일반 사회에서처럼 물질적 이해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단체가 추구하는 종교적 가치를 근간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조계종 중회내 계파 어떻게 봐야 하나

총회의원들은 수시로 상호간의 정보교환이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데 이것은 중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중회의 각 계파는 계파를 전면에 내세워 ‘나뉘먹기식’의 세속화 길을 걷고 있다. 정책의 본질이 어떻게든 상대 계파의 반대 입장에 서거나 또는 필요에 의해 동조하는 식의 이기적 행위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계연 (전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직선제를 통해 중회를 구성한 것은 지역 및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생산해 내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계파 간 이해관계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중회의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회의 행태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모든 힘이 중회와

조계종 중회는 조계종이라는 종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기구이다. 조계종 중회에 규정된 중앙총회의 역할 또한 분명히 정치적인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조계종에서 ‘종단정치’라고 하면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서 주로 이해관계를 다루는 데 쓰이는 야합, 계파, 모략, 음해, 호도 등의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쓰인다는 점이다. 제13대 중앙총회에 이르러 문벌에서 몇몇



윤남진 (현 불교계기대 기획실장)

종단 지향가치 실현에 부합해야 정치핵심부만 공유하던 계파적 이합집산이 공공연해지고, 나아가 공식화된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좋은 일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겉모습과 속 모습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다른, 이중성을 벗고 투명해지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런 계파 형성과 활동이 종교 집단으로서의 조계종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에 부합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단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리더십의 한 표현으로서, 그 사명과 비전의 실현 방법에 차이가 있는 의원들 간의 분명한 분리와 결함이라야 세간의 비웃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뉘먹기식’ 배제, 합리적 정책생산을

집행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만이 쌓이다 보면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역사가 단기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는가. 계파간의 이해대립이 교단 붕괴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회 스스로 자정운동을 해나가야 한다. 중회는 엄연히 중도들의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이다. 계파에 개여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승가의 도리가 아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 중회의원들 각자가 부처님 정신에 입각해 생각하고 활동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천복이나 장보교환의 자연스런 모임 이상으로 이해관계가 맞서는 모임을 없애야 하며, 특히 이런 모임을 방지해 이기집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종단 지향가치 실현에 부합해야

정치핵심부만 공유하던 계파적 이합집산이 공공연해지고, 나아가 공식화된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좋은 일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겉모습과 속 모습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다른, 이중성을 벗고 투명해지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런 계파 형성과 활동이 종교 집단으로서의 조계종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에 부합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단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리더십의 한 표현으로서, 그 사명과 비전의 실현 방법에 차이가 있는 의원들 간의 분명한 분리와 결함이라야 세간의 비웃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불자의 생각

대선불교 공약



대다수 불자들은 현재 대선 주자들의 대 불교계 공약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0명이 동참한 불교뉴스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42명(52.5%)이 잘 모른다, 15명(18.8%)이 전

불자들 대선 공약 몰라 71.3%

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잘 알고 있는 의견은 9명(11.2%), 대강 알고 있다는 14명(17.5%)에 불과했다. 모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38명(53.6%)이 홍보하는 곳이 없어서, 21명(29.6%)이 관심이 없어서, 12명(17%)이 기타라고 응답했다. 김두식 기자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불자들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부처님의 정골진신사리를 모신 불지중가 통도사에서는 예년과 같이 아래 일정에 따라 2546(2002)년도 화엄산림대법회를 봉행토록 합니다.

본사 화엄산림은 벌써 30여년간 계속하여 온 뿌리깊은 공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모든 경전의 근본이 되며 가장 광대하고 깊은 오묘한 모든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방의 훌륭한 스님들 30여분을 초빙하여 귀중한 시간과 장엄한 법당(법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연있는 많은 불자와 함께 화장장엄세계의 불보살님께 동참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보리심을 발하여 지혜와 복덕을 갖추시길 바라며, 또한 선망부모와 일체영가를 천도, 이고득락케 하시면 한량 없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나루대방광불화엄경

불기 2546년 11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15 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합장

입재 - 2002년 12월 4일(수) (음 11월 1일)/오전 10시  
회향 - 2003년 1월 2일(목) (음 11월 30일)/오전 10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영가 천도재를 지냅니다.

통도사 설법전

1개월 동참비 : 100,000원(비포 배부)  
반산림 : 50,000원 영가동참비 : 1위당 10,000원

· 부산지역 (본사처량및한승고속관광)온천장 지하철역 앞(08:00-09:00)  
· 울산지역 (부성고속관광)공설운동장(08:00) → 중구형 → 세원예식장 → 태화호텔 → 시청공영탑로터리(08:40) → 무거로타 → 고속도로 → 통도사  
· 대중교통 부산노포동중합터미널, 천일일만고속,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통도사종무소 (055)382-7182  
기와 접수처 (055)381-1288  
회계실 (055)382-7187

2002년도 화엄산림 법사 일정표

Table with columns: 음력, 양력, 요일, 법사, 법문할 품. Lists dates and topics for Buddhist services.